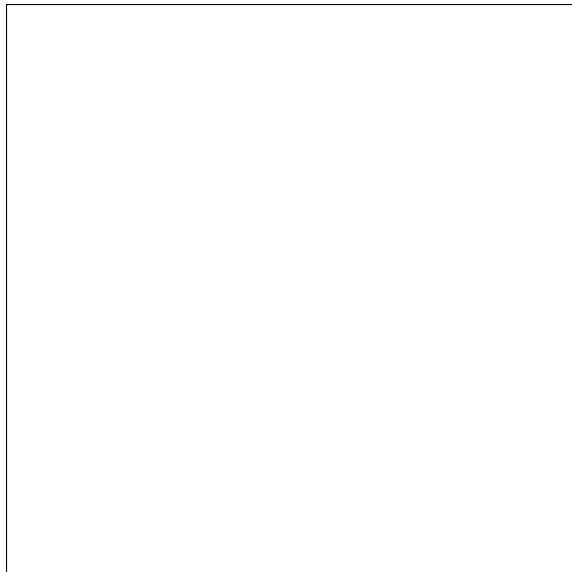




(utan bilder)

- Rukia Nantale
- Benjamin Mitchell
- Ryoko Sakakibara
- japanska
- nivå 5



BERÄTTELSE

## Sagor för barn på svens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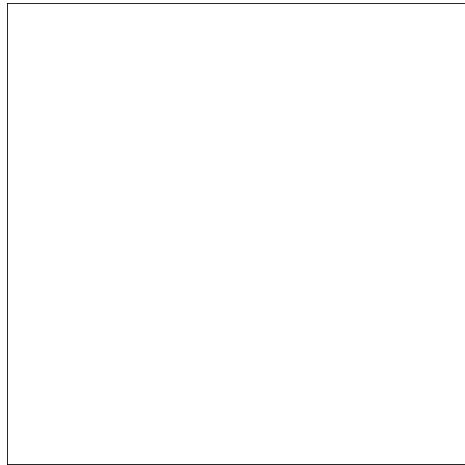
BERÄTTELSE

[berattelser.se](http://berattelser.se)

Skrivet av: Rukia Nantale  
Illustrerad av: Benjamin Mitchell  
Översatt av: Ryoko Sakakib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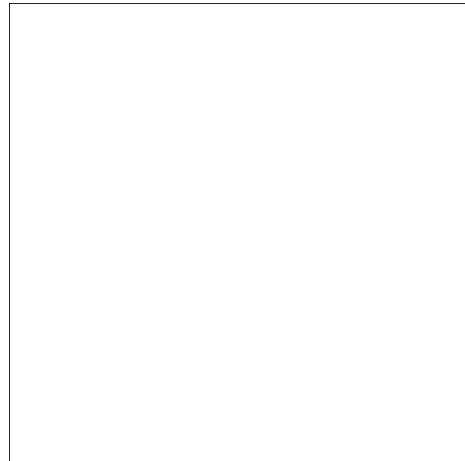
Denna saga kommer från African Storybook (africanstorybook.org) och vidarebefordras av Sagor för barn på svenska ([https://berattelser.se/](http://berattelser.se/)), som erbjuder sagor på många språk som talas i Sveri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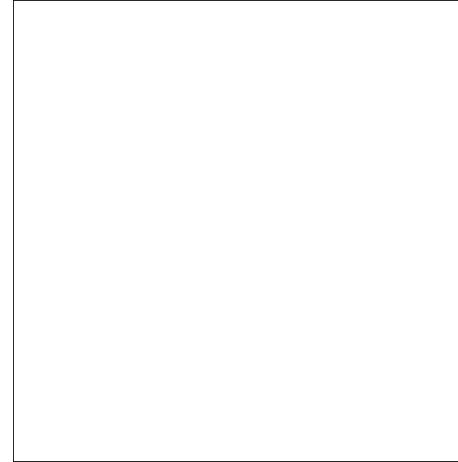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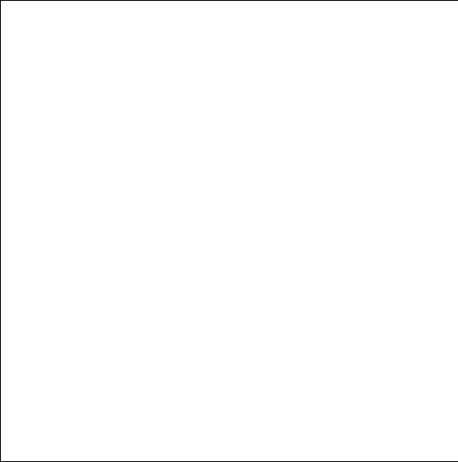
Detta verk är licensierat under en Creative Commons  
Erlämnande 3.0 Internasjonal lisen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deed.sv>



お母さんが死んでしまって、シンベグイレは、ほんとうに本当に悲しい気持ちでした。けれども、お父さんがシンベグイレのためにできる限りのことしてくれたので、お母さんがいなくても、少しずつですが元気にな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ふたりは、毎朝同じ椅子と一緒に座ってその日のことをはなし、夜には一緒にご飯をつくりました。そして、片付けが終わったら、お父さんがシンベグイレの宿題を手伝うのでした。

그의 흥미로운 일기다.  
그는 그의 일기에서 「여기서는 그의 일기다.」라고 말한다.  
그는 그의 일기에서 「여기서는 그의 일기다.」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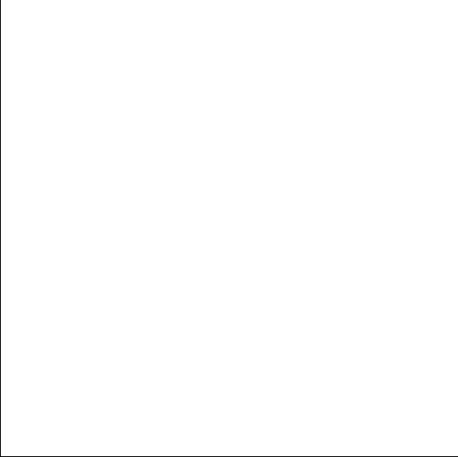
「はじめまして、シンベグイレ。お父さんからたくさんあなたのことについてるのよ」そう言ったものの、アニータは笑いもしなければ、シンベグイレの手を取ろうともしません。お父さんはというと、とても嬉しそうにウキウキしながら、これから3人で暮らしたらどんなに素敵なお暮らしになるかを話しています。

「ねえ、シンベグイレ、アニータをお母さんだと思ってくれたら嬉しいんだけどな」お父さんは言い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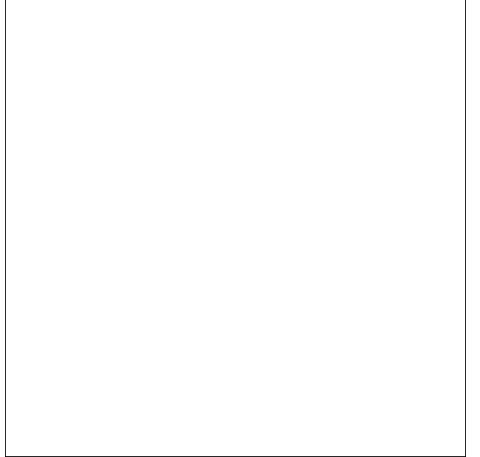
次の週、アニータはシンベグイレといとことおばさんを家に呼んで、ご飯をふるまいました。すごいごちそうです！ アニータはシンベグイレの大好きなものをぜんぶ作っていて、みんなでおなかいっぱいになるまで食べました。食べ終わると、大人たちが話しているあいだ、子どもたちは一緒に遊びました。遊びながら、シンベグイレは本当にとても嬉しくなって、勇気もわいてきました。だからこう決めたのです。「あと少し、あとほんの少ししたら、うちに帰って、お父さんと新しいお母さんと一緒に暮らそう」。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도 그 일을 향한 열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은 저에게 힘을 주었고, 저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 열정은 저에게 ‘그일을 하면 나를 더 잘 살 수 있는 것 같다’는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저의 열정은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이 공부방에 대해서는 그동안无数次 이야기해온 바와 같이 꽤나 깊은 개인적인 소설입니다. 당시에는 저에게는 그동안의 모든 것과 같은 제2학년 대비 시험에서의 성적 저하로 인해 학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저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목표였던 대학교 입학이라는 목표가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한 현실적인 상황에 고개를 갠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학년 대비 시험을 끝낸 후에도 저마다 학교에 등록하거나 학제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해온 것입니다. 그 결과 제2학년 대비 시험에서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성적 저하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점점 더 나아지는 성적과 함께 저에게는 점점 더 멀어지는 대학교 입학이라는 목표가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한 현실적인 상황에 고개를 갠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학년 대비 시험을 끝난 후에도 저마다 학교에 등록하거나 학제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해온 것입니다. 그 결과 제2학년 대비 시험에서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성적 저하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점점 더 나아지는 성적과 함께 저에게는 점점 더 멀어지는 대학교 입학이라는 목표가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한 현실적인 상황에 고개를 갠 적이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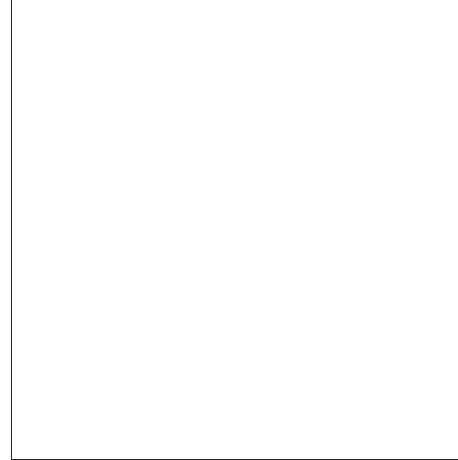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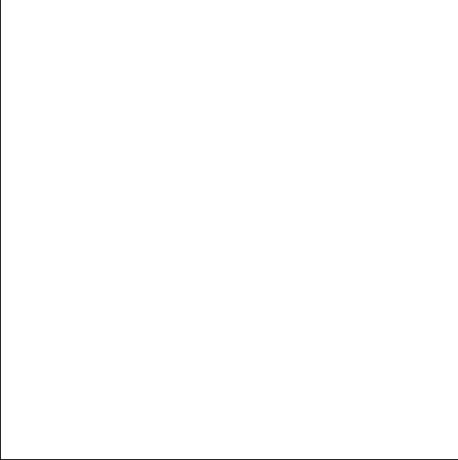
何か月かたって、お父さんはしばらく家を空けると言いました。「出張にいかなくちゃいけないけど、ふたりは一緒にがんばれるよね」シンベグイレの顔が曇ったことに、お父さんは気づきませんでした。アニータはだまっていました。アニータも嬉しくなかったのです。



シンベグイレがいとこたちと遊んでいたときでした。遠くにお父さんの姿を見つけたシンベグイレは、お父さんが怒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怖くなって、おばさんの家の中に急いで隠れてしまいました。けれども、近くまでやってきたお父さんはこう言いました。「シンベグイレ、お母さんにぴったりな人を自分で探し出したんだね。シンベグイレのことが大好きで、しかもわかってくれる人だもんね。僕はそんなすごい娘がいてくれて幸せだし、父さんだってシンベグイレのことが大好きなんだよ」お父さんとはなして、シンベグイレは好きなだけおばさんの家にいら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이전에 그녀가 했던 일처럼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그녀의 일상적인 활동을 묘사하는 글을 썼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그녀의 일상적인 활동을 묘사하는 글을 썼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그녀의 일상적인 활동을 묘사하는 글을 썼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그녀의 일상적인 활동을 묘사하는 글을 썼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그녀의 일상적인 활동을 묘사하는 글을 썼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그녀의 일상적인 활동을 묘사하는 글을 썼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그녀의 일상적인 활동을 묘사하는 글을 썼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그녀의 일상적인 활동을 묘사하는 글을 썼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그녀의 일상적인 활동을 묘사하는 글을 썼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그녀의 일상적인 활동을 묘사하는 글을 썼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그녀의 일상적인 활동을 묘사하는 글을 썼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그녀의 일상적인 활동을 묘사하는 글을 썼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그녀의 일상적인 활동을 묘사하는 글을 썼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그녀의 일상적인 활동을 묘사하는 글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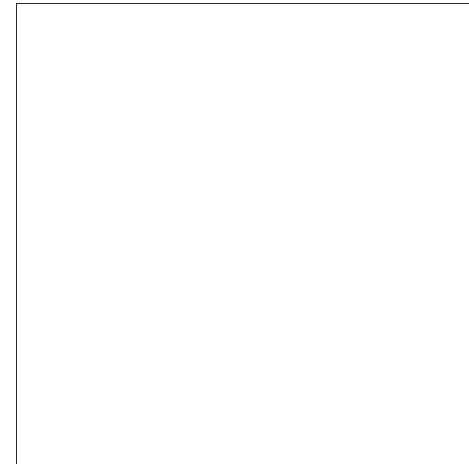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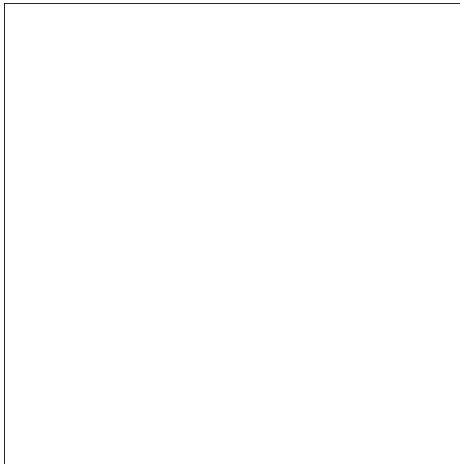
そんなある朝、シンベグイレは寝坊してしまいました。「なんて怠け者なの！」アニータは怒って、シンベグイレを布団から引きずり出しました。大切なお母さんの毛布にアニータの爪が引っかかって、毛布は真っ二つにちぎれてしまい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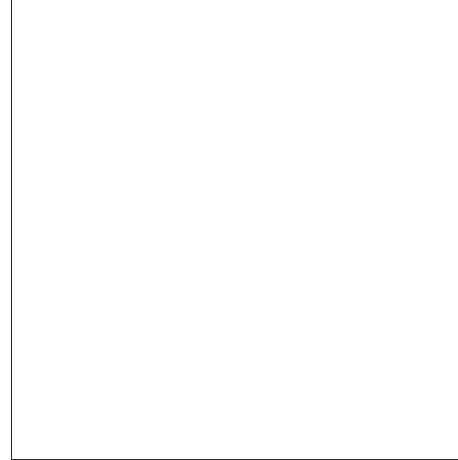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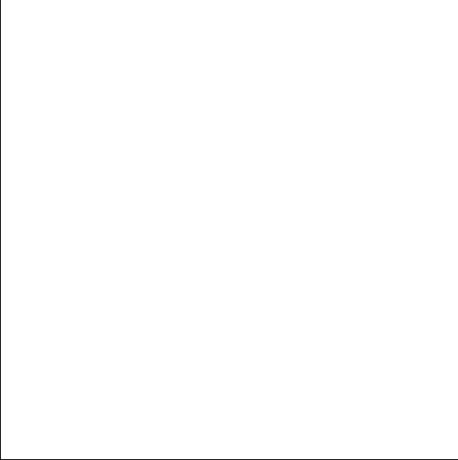
おばさんはシンベグイレを家に連れて帰ると、あたたかいご飯を出してくれたあと、お母さんの毛布をかけた布団にシンベグイレを寝かせてくれました。その夜寝るとき、シンベグイレは泣いてしまったのですが、でもそれはつらくて泣いたのではありません。安心したから泣いてしまったのでした。おばさんならちゃんと面倒をみてくれると、シンベグイレにはわかったのです。

의 그,一生懸命하고 노력하는 그의 그녀에게.  
그녀는 그의 노력과 노력에 대한 그녀의 존경을  
그녀는 그녀의 노력에 대한 그녀의 존경을  
그녀는 그녀의 노력에 대한 그녀의 존경을  
그녀는 그녀의 노력에 대한 그녀의 존경을

그녀는 그녀의 노력에 대한 그녀의 존경을  
그녀는 그녀의 노력에 대한 그녀의 존경을  
그녀는 그녀의 노력에 대한 그녀의 존경을  
그녀는 그녀의 노력에 대한 그녀의 존경을

그녀는 그녀의 노력에 대한 그녀의 존경을  
그녀는 그녀의 노력에 대한 그녀의 존경을  
그녀는 그녀의 노력에 대한 그녀의 존경을  
그녀는 그녀의 노력에 대한 그녀의 존경을





夜になって、シンベグイレは川のほとりの高い木にのぼって、枝の間に寝床をつくりました。そして、寝るときにこんな歌をうたいました。おかあさんおかあさんおかあさんがおいてった私をおいて行っちゃつたおとうさんは好きじゃないもう、私のことが好きじゃないおかあさんは、いつ帰る？ おかあさんがおいてつた。

翌朝も、シンベグイレはまた同じ歌をうたいました。その歌は、川へ洗濯に来た女の人たちの耳にも入りましたが、高い木の上から聞こえてくるので、女の人たちは、これはきっと葉っぱが音を立てているのだろうと思って洗濯を続けていました。けれども、その歌をしっかり聴いた人がひとりだけいました。